농어촌공사 경주지사, 하반기 운영대의원회 열고 영농 현장 목소리 청취

김교환 기자 | 승인 2026.11.12 23:43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12일 경주지사 회의실에서 운영대의원 및 관계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6년 하반기 운영대의원회」를 개최했다./사진-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박기철)가 농업인 대표들과 함께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와 물관리 방안을 점검했다.

경주지사는 12일 지사 회의실에서 운영대의원과 관계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운영대의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운영대의원회는 농업인이 공사 경영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내는 경영자문기구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물관리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설립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주지사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공유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방안 등 지역 농업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운영대의원들은 각 지역 영농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농업인 편의를 높이고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박기철 지사장은 "운영대의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지역 농업인의 의견을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교환 기자

저작권자 © 투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